

신안 새천년대교 전남 서남권 랜드마크로

국내 4번째 긴 교량 12월 개통 신안군-익산청 경관조명 협약 2019년까지 연계도로도 건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신안 새천년대교가 전남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대교 조감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공>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가 전남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착공한 새천년대교는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88.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새천년대교는 총사업비 5689억원을 투입하는 교량으로 연장이 7.22km인 국내에서 4번째로 긴 교량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단일 교량에 현수교와 사장교를 함께 배치하는 형태다.

익산청은 지난 3월부터 신안군과 협의를 통해 야간 경관조명과 송공교차로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새천년대교를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당초 설계에 반영한 새천년대교의 조명

방식(정적조명)으로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활기차고 리듬감 있는 동적조명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친환경적인 발광다이오드(LED) 제품도 활용한다.

내년 송공항 배후 공유수면매립이 끝나고 다기능 수산위판장과 수산식품 거점단지 등을 조성하면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새천년대교와 연결하는 신설도로도 건립한다.

신설도로는 2019년 4월까지 개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신안군이 투입하고 익산청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천년대교가 개통하면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교량과 야간 경관조명을 보기 위해 주·야간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새천년대교에 최적의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교량을 조망할 수 있는 섬터도 개설해 서남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함평군 관계자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센터에 현판을 달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문 열어

함평군은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담당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함평군 함평읍에 위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층 건물에 100㎡ 규모로 건립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주민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센터에는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와 사무국장

등이 배치됐다. 함평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과 도비 17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6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조태용 함평부군수는 "민과 관이 협력해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동하면 침체돼 있는 지역에 활기와 온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신안군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지 인기

체험비용 일부 지원

8개 학교 1000여명 다녀가

신안군의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중도와 입자도를 연계한 소규모 테마형 프로그램을 기획, 인센티브와 함께 체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8개 학교 1000여명이 신안을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기 힘들어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한 타이틀이 붙은 중도 갯벌과 천일염 등을 소재로 한 학습과 체험활동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생태 관광지인 중도와 입자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심포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 예산을 늘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수학여행팀에게 당일 5000원, 숙박 1만원과 갯벌 카약 투어 5000원, 승마체험 1만250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카약 체험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방조제 배수갑문 교체

2020년까지 98억원 들여

무안군은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계면 복길리 국가관리방조제 배수갑문을 전면 교체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청계 복길 배수갑문은 지난 2017년 배수갑문 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수문 변형과 기술어짐, 문주와 지수판 균열 가속화 등으로 배수문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우기 시에는 복길간척지 일부 구간의 농경지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오래전부터 배수갑문 확장공사의 필요

성이 제기돼 왔다. 군은 배수갑문을 당초 6.0m×2.2m×4련에서 7.0m×5.0m×5련으로 확장하고, 만조 시에도 빗물을 강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부유쓰레기 유출로 인한 인근 김 양식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진기를 설치하고, 염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저염시설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복길리 배수갑문 확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실시설계시 인근 주민과 김 양식장 어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영광 불갑저수지서 전국학생 수상스키대회

오늘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제31회 전국남녀학생종별 수상스키-웨이크보드선수권대회 및 2018 남녀종별오픈대회가 오늘부터 3일까지 사흘간 영광 불갑저수지 수상스키장에서 열린다.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회장 장인화)가 주최하고 전남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회장 홍성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300여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상스키 3종목(슬라롬, 트릭, 점프)과 웨이크보드 등 4종목에서 최강자를 가리게 된다.

영광군은 2008년부터 매년 수상스키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6년에는 아시아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레저스포츠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대회 개최 장소인 불갑저수지는 영광 9경 중 하나인 불갑사를 품고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 대회가 레저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참가 선수들이 수준 높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평경찰서 초등학생 사이버 범죄예방교육

함평경찰서(서장 정규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최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학교면 학다리중앙초등학교대



강당에서 초등학생 5·6학년 전교생(5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중 하나인 인터넷 사기 관련 예방교육으로 실시했다. 정규열 함평경찰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매일 지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인터넷 물품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영광군 10월 31일까지 '아름다운 영광' 영상 공모전

영광군은 '아름다운 영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아름다운 영광의 자연경관과 관광명소, 축제, 특산물 등 영광의 매력을 주제로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이며, 접수는 작품과 신청서를 전자우편

(glory_yg@naver.com)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11월 심사를 거쳐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총 590만원이며, 대상 200만원(1명),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70만원(2명), 장려상 50만원(3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매 투자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 공동투자 가능

▶자본금 1억이상

▶월15% 이상 수익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